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공주 계룡산 상신마을

정봉희 _ 충남연구원 홍보팀장



계룡산 한 자락에 살포시 숨어있는 고즈넉한 마을이 하나 있다. 옛날 중국 유신국의 지리적 형태와 닮았다고 하는데, 그중 신소를 중심으로 아래로는 하신, 위는 상신이라 불렀다고 한다. 이번에 소개할 곳은 윗마을에 해당하는 공주시 반포면에 위치한 ‘계룡산 상신마을’이다.

계룡산 입구에서 공주 방향으로 1km를 내려가다가 보면 금방 좌회전 신호를 받아 계룡산의 또 다른 줄기로 올라가게 되는데, 자동차로 10여분을 달리다 보면 폐교된 상신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한 상신리 농촌체험휴양마을센터를 만나게 된다.

“전통서당체험 방문단이 내일 을 예정이어서 바빴는데, 마침 오늘 방송국에서 촬영을 오는 바람에...”

필자가 만난 상신마을 고주환 위원장은 인터뷰 도중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미안한지 연신 웃음을 보 이셨다. 올해 55세. 이 마을에서 태어났고 선생님 생활 20년을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다. 그러던 중 지난 2013년부터 이 마을사업을 맡아 추진하게 되었다고.

상신마을은 그냥 둘러보면 이곳이 전형적인 농촌마을인 지 전원주택촌인지 헷갈릴 수 있다. 농사짓는 다랭이논도 있고, 우물, 돌담 등이 있는 걸 보면 농촌 모습 그대로인데, 도시에서 봄직한 별장같은 집이라던지 카페도 눈에 들어 오는 걸 보면 농촌이 아닌 것 같은 두 얼굴을 가진 마을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공주 상신마을 고주환 위원장





〈체험센터 모습〉



〈편백체험관 6개동〉

고 위원장은 “이 마을은 귀촌한 외지인들이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라며 “토박이로 자란 마을주민들과는 소통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아쉬워했다.

현재 상신마을은 127가구 396명이 살고 있지만, 이중 절반이 외지인이고, 체험에 참여하는 47가구 중 외지인은 약 10가구 정도라고 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이 마을에서 농사만 짓고 있는 주민은 오직 1가구 뿐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농사일도 하면서 인근 지역 직장으로 출퇴근하거나 사업·장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아무래도 마을 주민과 외지인 사이의 정을 나누기가 쉬운 상황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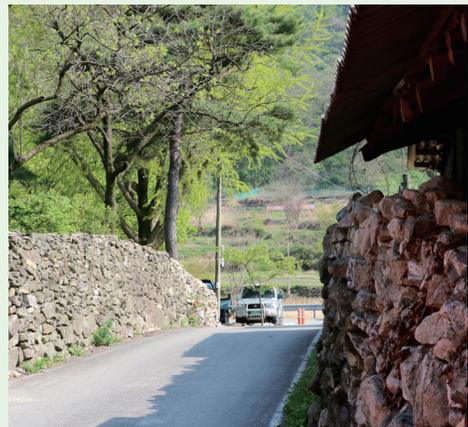
또한 마을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노령화와 생활고에 따른 참여부족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기도 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마을의 역사와 함께 전승된 전통주와 전통장류를 중심으로 6차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계획 중이란다.

고 위원장은 “우리 마을에서 생산된 백태를 가공해서 만든 청국장은 유구한 마을의 역사와 함께 전승된 아주머니들의 손맛이 일품”이라며 “재래식방법의 된장과 간장, 그리고 마을의 청정수를 이용해 빚은 전통주가 인기”라고 자랑했다.

무엇보다 상신마을은 체험관광의 메카답게 체험센터를 중심으로 편백체험관 6개동과 3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숙박동을 보유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코스모스전통서당체험, 도자



충남
마을
탐방



〈상신마을은 돌담이 유명해 일명 '돌담풍경마을'로 불린다〉
자료출처 : 상신마을 사진자료



기 만들기, 전통촌락상신문화탐방, 두부 만들기, 인절미 체험, 목이버섯만두만들기체험, 미꾸라지잡기체험 등은 인기가 여전하다.



(미꾸라지 잡기, 서당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진행모습)

특히 이 마을의 특색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토속신앙과 유교적 질서의 조화라 할 수 있다. 전통촌락의 유형 문화를 잘 보존하기 있기 때문에 마을 전체가 전통촌락박물관이라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다. 예를 들면 상여집터, 용산구곡, 세이천, 소도, 장승, 선돌, 큰샘, 당간지주, 구룡사지, 여천, 산정이 서당터, 이참봉댁, 옷샘, 부도골, 서당터, 산신당 등 마을 곳곳에 전시물이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이 마을에서는 서당문화자원을 활용한 전통에 절제함과 서당체험을 할 수 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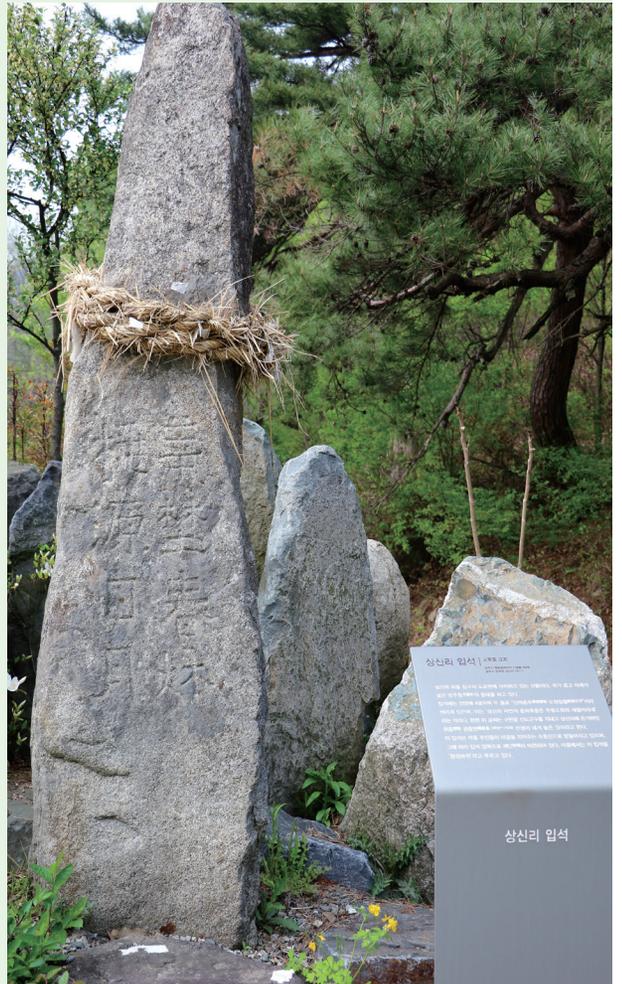
충남
탐방



〈상신마을 당간지주 - 고려시대 구룡사의 당간지주로 추정됨〉



〈마을 한가운데 위치한 우물〉



〈상신리 선돌(立石) - '상신 들녘의 춘하추동은 무릉도원의 세월이여라' 를 의미〉



지도 현황

- ① 상어집 ② 동구의 전경과 개학동문, 용산구곡 심룡문 ③ 장승, 솟대, 귀음동천, 소도, 상신 유래비, 새마을비, 진덕교, 선돌(立石)
- ④ 계룡산 상신 농촌체험휴양마을 센터 ⑤ 큰 샘, 귀음 권중면 주택
- ⑥ 통구제 ⑦ 구룡사지와 이찰봉 대 (새뜸) ⑧ 마을회관 노인회관
- ⑨ 여천 ⑩ 옷샘, 용산구곡 2곡 은룡담 ⑪ 부도굴, 서당터, 샘터 ⑫ 용산구곡 3곡부터 9곡 ⑬ 산신당 ⑭ 산정이 서당(꽃배) ⑮ 도예촌

〈상신마을 지형 및 주요자원〉 자료출처 : 고주환·김미경, '신야도원-전통촌락상신문화탐방' (2015, 문경출판사)

험은 인기가 높다. 다만 이 도예촌과 상신마을의 연계성을 찾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지금도 포크레인 작업소리가 들리고 있어서 사실상 상신마을과는 별개로 여겨지기도 했다.

필자는 위원장이 추천해주는 탐방코스를 따라 마을을 돌아다녀왔다. 앞뒤로 흐르는 냇가를 끼고 안쪽에 자리잡은 전통유산들, 그리고 그 사이에 들어선 고급스런 전원주택들이 낯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보면 계룡산의 깊은 산세와 맑고 깨끗한 물은 한 여름 더위를 말끔히 씻어주기에 충분한 휴식을 제공할꺼란 믿음이 생겼다.

특히 마을회관 앞에 보이는 '여천(女川)'은 말 그대로 여인이 사용하는 냇물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필자는 이 의미에 호기심이 발동해서 자료를 찾아보니, 예전에는 집집마다 상수도 시설이 없었던 터라, 많은 여인네들이 씻을 물이 없었다고 한다. 결국 남녀유별이 뚜렷했던 시절에 생각해낸 것이 바로 여천인 것이다. 즉 여인들만이 사용하는 목욕탕, 바로 여탕이었던 셈이다.¹⁾

그리고 이 마을에는 많은 방문객이나 체험객이 다녀갔을 법한 계룡산도자예술촌(일명 '도예촌')이 별도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는 약10곳 정도가 운영 중인데, 과거에 비해서는 침체되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도자기 만들기 체



1) 고주환·김미경, '신야도원-전통촌락상신문화탐방' (2015, 문경출판사)



충남
마을
탐방



〈맨 왼쪽 위 '여천' 을 비롯한 마을 풍경〉



〈마을 초입 앞뒤벧가가 합류하는 지점에 생긴 '소도'의 모습〉

고 위원장은 “지난해 체험객수는 약3730명, 체험객 및 특산품 판매 등을 통한 연매출은 약46,300,000원으로 많은 편이 아니다”라며 “올해는 체험객 약 2만명, 2억원 매출 달성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상신리문화특화조성사업’과 전통촌락 원형 보존을 위한 자치단체의 지구지정 등을 추진해 전통문화마을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신마을은 계룡산국립공원 내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다. 그리고 아직도 전통촌락의 모습을 간직한 다양한 문화자원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이 이 마을의 어메니티를 살릴 수 있는 장점인 만큼 그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길 바라며, 무엇보다 원주민과 새롭게 이주해 들어온 주민 간의 화합과 소통을 통한 공동체가 형성되길 기대해본다. ◀



충남
탐방



〈마을 오른쪽 언덕위에 자리잡은 계룡산도자예술촌 모습〉